

# 충실한 데이터베이스화가 첫걸음

## 번역물찾기 ⑥

조승훈

음지서적 외서부 사장

### ■ 보급판의 출판

소설·비소설에 관계없이 번역서 선정에서 절대적으로 참작돼야 할 것이 있다. 상업적 결과에 직결이 되어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의 초판은 대부분의 과학소설을 빼고는 거의 다 하드커버(호화장정판)로 출판되고 판매 여하에 따라 얼마 후 페이퍼백(보급판)으로 나온다.

페이퍼백에는 유통상 두가지로 분류한다. 하나는 슈퍼마켓에서도 판매되는 매스(mass) (미국 출판업계 용어로 포켓 사이즈 페이퍼백이나 그중에서도 반송할 때 책 알맹이는 버리고 겉장만 출판사로 보낼 수 있는 책)이고, 또 하나는 소프트 커버로 되어 있는 트레이드 페이퍼백(Trade Paperback) (역시 미국 출판업계 용어로 거래조건은 하드커버와 마찬가지로)이다.

번역서로 지목되는 책이 매스로도 출판된다면 그것은 미국에서 대단한 판매가 예상되는 책으로 간주해도 좋다. 반면 트레이드 페이퍼백으로도 출판되지 않을 책이라면 일반독자의 수요가 극히 적다는 것을 말한다. 어떤 책은 초판 당시 매스의 출력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하드커버 출판 이후 추이를 관찰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주변 사정을 번역여부와 관련 액수 결정에 참작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에 관한 정보는 관련 출판사와의 접촉이 필요하거나 《뉴욕타임즈 북리뷰》의 ‘페이퍼백 베스트셀러’ 리스트 바로 왼쪽에 위치한 ‘New & Noteworthy Paperback’란은 이미 출권이 되었던 책중에서 갖 paperback edition으로 나온 책으로 좋은 읽을거리임을 《NYT BR》편집인들이 일반독자에게 다짐해주는 컬럼이란 것을 특기한다.

### ■ And Bear in Mind (그리고 명심하세요)

베스트셀러는 일반독자들의 선호를 반영한다. 비록 인기는 있더라도 꼭 훌륭한 책은 아니다. 훌륭한 읽을거리라도 일반독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책이 수없이 많다. 《뉴욕타임즈 북리뷰》 ‘베스트셀러’ 리스트 바로 밑에는 ‘And Bear in Mind’란 난이

번역서 탐색의 첫걸음은 찾고 있는 책이 ‘누구를 위한 어떤 책이나’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일이다. 그런 다음 탐색과정을 통한 충실한 데이터베이스가 쌓였을 때 번역물을 찾아내는 노하우도 생기게 된다.

있는데 여기에 열거된 책은 최근 출판된 책 중에서 ‘NYT BR’ 편집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끌고 있다는 책들이다. 비록 베스트셀러 중에는 번역할 만한 책이 없어도 ‘그리고 명심하세요’란에는 언제나 꼭 번역할 만한 책이 몇개씩 열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 ■ 독서클럽의 선정

여러 종류의 독서클럽 (예: Book-of-the-month Club, History Book Club, Literary Guild)들이 각각 선정한 책은 책의 수준을 반영하면서 판매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마케팅에 큰 이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서 선정에서 꼭 고려되어야 한다.

### ■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소설·비소설 베스트셀러 작가에 대한 기본정보, 노벨상을 비롯한 여러상, 수상자에 대한 기본정보, 영화화나 TV화된 저자·서적에 대한 기본정보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름·저서명·출판사 중에서 최소한도 하나는 정착해야만 인터넷이나 도서관을 통한 심층조사가 가능하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저자, 책의 상품으로서의 성격, 출판사를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번역서 선정 여부를 결정할 기초자료로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번역서 탐색의 첫걸음은 찾고 있는 책이

‘누구를 위한 어떤 책이나’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일이다. 그것은 마치 다른 모든 산업에서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상품·서비스를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논리이다.

위의 결정사항을 마련된 데이터베이스에 대입하면 찾고 있는 책의 상품으로서의 성격, 출판사, 저자 등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그것이 탐색의 시발점이며 이 시점에서 탐색은 두 방향으로 갈라진다. 한편은 이미 출판된 서적들(backlist), 또 한편은 앞으로 출판이 될 서적들(frontlist)의 탐색이다.

이미 출판된 서적중에서 탐색하는데 도움이 될 자료를 열거 해보면 몇가지가 있다.

### ■ BIP, Author

종합도서목록, 저자별 목록에서 주요 저자의 모든 저서를 찾아볼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지목되는 서적의 개별적인 상업적 이력을 볼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특정 출

판사가 특정분야의 출판물을 많이 다룬다는 정보를 얻게 마련이다. 그 특정 출판사의 출판목록을 통해서 새로운 저자와 도서를 접하게 된다.

Frontlist의 모니터도 중요하다. 앞의 단계에서 드러난 주요 출판사, 주요 저자와 연관을 맺고 있는 출판사의 출판예고를 정기적으로 입수·분석하면서 앞으로 출판될 서적 중에서 번역서를 찾을 수 있다.

결국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충실해지면 번역서를 찾아내는 노하우도 쌓이게 될 것이다.

### ■ Books-in-print, Subject Guide

종합도서목록, 주제별 목록에서 선정한 분야의 고전, 기본도서, 그 분야의 주요 저자와 주요 출판사의 윤곽이 나타난다. (끝)

### 화제의 책

## 프랑스에 선보이는 우리의 소설

김원일의 《LA MAISON DANS LA COUR DU BAS》 출간



국내 중견작가 김원일씨의 장편소설 《마당 깊은 집》(LA MAISON DANS LA COUR DU BAS)이 프랑스의 아르마탕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민희식 교수(한양대 불문과)와 재벌 번역가인 변지켄마이어가 공역한 《마당 깊은 집》은 한국전쟁 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작품. 대산재단(이사장 신창재)의 지원으로 출판된 이 작품은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전쟁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현지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전통 한옥의 표지 사진을 프랑스의 작가인 피에르 안드레가 찍은 것이 이채롭다. 다른 책과는 달리 이번 불역판에는 후기에 작가와 등장인물, 작품의 배경이 되는 지명들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프랑스인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초판으로 3천부 발행.

책을 출간한 프랑스의 아르마탕출판사는 최근 《마당 깊은 집》과 함께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 한말숙의 《아름다운 영가》 등을 동시에 출간하였고 곧 한용운의 《님의 침묵》과 한국 학술총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한다. ❖